

문화특가

교월동주민센터, 주민소통 현장행정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는 박상문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모두가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튼튼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 주민과의 공감대 확산과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는 박상문 교월동장은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은 물론 민원현장, 영농현장, 재해위험지역 그리고 취약계층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동업업무 추진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주민센터는 행정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자생차, 차 박람회서 홍보

정읍 자생차(이하 자생차)가 2016 동아차·공예 박람회(이하 동아차·공예 박람회)에 참가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정읍농업기술센터는 정읍자생차영농조합법인(대표 박영욱)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일산KINEX(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차·공예박람회에 참가해 자생차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자생차의 오래된 역사성과 우수성을 관람객들에게 알린 물론 정읍에서 생산되고 있는 녹차와 발효차, 구절초차 등을 전시·홍보·판매하고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아직도 커피 소비가 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 우려차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차(茶)는 제다와 차례체함 등을 통한 정제과정과 차유효과가 커 앞으로 힐링(Healing)작목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위도 치도어촌계 조난위령제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치도어촌계(어촌계장 송기철)는 제85주기 칠산어장 조난위령제를 오는 27일 치도 마을 조난어업자 조령기념비에서 추모사, 분향강신 및 현직 유족대표 인사, 현화 등 1부 행사와 2부 기념행사로 진행한다.

칠산어장 조난위령제는 지난 1931년 위도면 치도리 앞바다인 칠산어장에서 조기잡이 조업 중 4월, 8월, 12월 3회에 걸쳐 강한 태풍이 불어 500여 척의 선박이 침몰당하고 600여 명의 어부가 목숨을 잃은 대참사를 추모하려고 1982년부터 거행해 왔다. 1980년 들어 그 위상이 격화되다 1993년 292명이 사망한 서해해리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 맥이 끊겼다가 치도 어촌계는 칠산어장 조난위령제의 맥이 끊긴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전국의 모든 수산인들의 귀감이 되고자 위령제를 작년에 부활하게 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췌,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여성청소년계가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지난 18일 상설시장 상가 상인 및 관내 아파트(9개소) 주민 대상으로 '응답하라, 안심메이리! 4대 사회악 근절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날 여장계 직원들은 상가 상인 및 아파트 주민을 1:1 대면하여 4대 악근절 홍보 리플릿·홍보물을 전달하였고, 군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강현신 서장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안군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 시킬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생기시장과 정규돈 지역발전위원회 단장,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일재 전라북도 부지사, 정운천국회원, 우천규 정읍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각급기관 단체장과 박병환 새뜰마을 사업추진위원장 등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산외면 새뜰마을 본격 공사

국비 등 40억원 투입... 주택정비·경관시설 조성 등 내년까지 마칠 계획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평사지구:노은운전, 평사마을, 187세대)일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뜰마을 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19일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생기시장과 정규돈 지역발전위원회 단장,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일재 전라북도 부지사, 정운천국회원, 우천규 정읍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각급기관 단체장과 박병환 새뜰마을 사업추진위원장 등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새뜰마을사업'은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

본 인프라를 확충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역생활권사업이다.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산외면 평사리는 지난 2011년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척곡제가 붕괴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 노후담장 방치로 인한 붕괴위험이 상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시와 주민들은 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추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거뻐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평사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오는 2017년 12월 준공예정. 국비 29억원을 포함 모두 40억원(도비 3억, 시비 7억, 주민부담 1억)이 투입된다.

사업은 크게 ▲주택 정비(스레이트 지붕개량과 빈집철거 등)와 ▲경관시설 정비(마을담장 정비, 마을쉼터 조성) ▲기반시설정비(마을안길과 재해시설 정비) ▲공공이용시설 조성(농산물건조광장, 빨래방 건립, 마을재활용집합장 설치)과 함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사업 5개 분야로 추진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보건소, 신성순씨 복지부 장관 표창

작년 국민건강관리부분 작년 기관표창에 이어 올해 개인부분 수상

김제시보건소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국민건강 영양관리부문에 작년 최우수 기관표창에 이어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상을 수상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날 성과대회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금연, 신체

활동 국민건강영양관리 등 분야별 우수자제 표창 및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구성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박래만)는 영양취약주민의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증진향상으로 국민건강 영양관리부분 건강증진담당(보건6급 신성순)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영양관리 우수 및 최우수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영양관리 사업으로 연이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부 및 영유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을 통한 지역의 건강증진 향상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소방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부안소방서는 2016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지난 19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김중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정완택 전북소방본부장, 김원술 부안소방서장, 강현신 부안경찰서장, 전현명 부안해안경비안전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부안소방서를 비롯하여 부안군, 부안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부안관리단, 군부대 등 38개 기관에서 헬기 및 차량 38대의 장비와 약 25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또 지진피해로 15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경기장 붕괴, 화재 확산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 수습 복구 등 대단위 종합실전훈련을 가졌다.

훈련 상황은 지진에 의한 부안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붕괴에 따른 화재

발생 및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자위 소방대 초기소화 및 인명구조 ▲긴급통제단 가동 및 활동 ▲긴급구조기관 응원 활동 ▲인명구조·수색 및 화재진압 활동 ▲긴급구조 지원기관 단체 복구활동 ▲대형제난에 대응능력체계 확립 ▲신속한 상황전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등이며,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 및 수습활동 등으로 훈련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김중규 부안군수는 강령을 통해 "오늘 같은 훈련은 부안군민을 넘어 전북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훈련이며, 이번 훈련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확립되고 재난사고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주 2~3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성년식(매년 5월 16일)과 다례시연을 가졌다.

정읍농기센터, 정주고서 성년식

예명문화원과 함께 예법에 따라 의식 재현

정읍농업기술센터는 19일 정주고등학교(교장 강진갑)에서 2~3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성년식의식(매년 5월 16일)과 다례시연을 가졌다.

예명문화원(대표 박형숙)과 함께 마련한 행사에서는 전통예법에 따라 성년의식을 재현하고 다례를 시연했다.

이날 정읍교육지원청 장성렬교육장과 학교 이태영교과 정주고 강진갑교장은 "관자빈(남자 성년의 주례)으로 나서 학생들에게 관모를 씌웠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성년의식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관혼상제의 4제 중 으뜸인 관례로 이를 통해 20대의 성년이 되는 자

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와 나라를 사랑하는 충 등 우리의 전통 덕목(德目)을 일깨워 왔다. 기술센터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성년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바로 잡고 전통의식을 통해 성년을 맞는 의미와 책임감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정읍자생차를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전통문화는 어렵고 번거롭다고만 여겼는데 직접 재현과 시연을 지켜보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물론 '성인'으로서의 바른 몸가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gsan Beer.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Gangsan Beer', and '부안강산 맥주'.